

71년 창립 ... 회원 3천3백여명 규합

공기조화냉동공학회

1971년 9월 공기조화, 냉동, 위생, 환경과 각종 설비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기술발전을 위해 창립한 공기조화냉동공학회는 현재 3천3백여명이 뚝뚝 뭉쳐 모범적으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마다 학회지 6회, 논문집 6회, 영문논문집 2회를 발간하는 등 96년에는 창립 25돌을 맞아 '온돌'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으며 30돌인 2001년에도 국제학술대회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朴喜鎔
(공기조화냉동공학회장)

본 학회는 공기조화, 냉동, 위생, 환경과 각종 설비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기술의 발전 그리고 관련 기술자의 지위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1년 9월에 창립(초대회장: 김효경)한 이래 28년이 되었다. 현재 부회장 5인과 담당이사 17인 및 감사 2인 그리고 7개 부문위원회와 27개의 분과, 6개 상설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4개 지부(부산·경남지부, 대전·충청지부, 대구·경북지부, 호남지부)와 30여 분회로 구성되어 있다.

3천3백여명의 정회원과 1백10여개

의 특별회원사 및 80여개 단체회원(도서관, 연구소 등)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조분야의 학술진흥과 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산학연 협동의 모범적인 학회로 성장하였다.

7개 부문위원회 중심 활동

〈위원회 활동〉 공조부문(공조기기분과, 시공기술분과, 에너지절약분과, T.A.B.분과, 축열분과), 냉동부문(상온응용분과, 저온응용분과), 위생부문(시공분과, 소방설비분과, 위생기구분과, 설계기술분과), 건설

환경부문(건물환기분과, 도로터널환기분과, 산업위생환기분과, 지하철환기분과), 건축환경부문(빛환경분과, 열환경분과, 소음환경분과, IAQ분과), 산업설비부문(클린룸분과, 환경시험설비분과, 지역냉난방분과), 자동제어부문(기초분과, 제어기기분과, 제어설계분과, 시스템분과, 시공분과) 등 7개 부문위원회가 설치되어 부문별로 강연·강습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교육제도, 국제협력, 편람, 편집, 표준화, 상훈심사 등의 6개 상설위원회가 설치되어 각 위원회별로 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체계적인 이론을 확립하여 산업계의 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학술활동〉 현재 학회지(연 6회)와 논문집(연 6회), 영문논문집(연 2회)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학회 창립 30주년 해인 2001년부터는 학회지 12회, 국문논문집 12회, 영문논문집 4회 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숙원사업으로 10여년에 걸쳐 2백여 집필진이 참여하여 「공기조화·냉동·위생공학 편람」 총 2천4백37면을 완간하였으며, 2000년 개정판 발간을 예정으로 편람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격제정사업으로 공기조화·냉동·위생 표준용어집, 시험·조정·평가(T.A.B.)기술기준, 우리나라 기계설비의 지침서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제·개정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건축기계설비기준을 제정 중에 있다.

또한 학회표준기상자료, 습공기선도, 급배수 위생설비 기



▲ 1972년 11월 전기회관에서 개최한 제1회 정기총회시 김효경 초대회장의 인사

술기준 등을 제정하여 학술 및 기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해마다 논문 3백여편 발표

매년 하계·동계로 나누어 6월과 11월에 정기적으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97, 98년 하계 학술발표회는 제품 전시회 및 신제품 발표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명실상부한 산학협동의 학술대축제가 되었으며, 참가한 8백여 회원 및 회원가족간의 돈독한 우의를 다지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학술발표회의 발표논문편수도 해마다 늘어나 현재는 약 3백여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무주리조트에서 6월 24~26일에 하계 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연·강습회를 연 10회 이상 개최하여 신기술 소개 및 정보교환, 평가 및 토의 등을 통하여 전문기술 축적 및 보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산·학·연 등 유관기관의 상호유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체 방문 강연회와 지방에서 하계 특별강연회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자료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학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CD-ROM에 수록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간의 정보,



▲ 1998년 동계 학술발표회 우수논문 수상자

회원사의 소식, 국내외 관련 학술행사 홍보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프로젝트 기계설비 자문용역을 수행해 학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석굴암 공기조화설비 개선방안, 국회의사당 노후설비 개선방안 연구, 국립중앙박물관내 전시 및 수장공간 공조환경 연구, 현재 수행중인 인천국제공항 기계설비 검토 등이 있다.

〈시상제도〉 공기조화, 냉동, 위생, 환경과 각종 설비에 관련된 공학분야의 학문과 기술의 발전 또는 학술활동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학회상(학술부문, 기술부문)을 표창하고 있으며, 기금의 출연을 받아 제정된 특별상(최상홍상, 스파이렉스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많은 자에 공로상을 시상하고 있다. 또한 학술발표회에 발표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우수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96년엔 '온돌' 주제 국제대회

〈국제활동〉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제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외국 관련학회와의 꾸준한 교류를 추진하여 1985년에 미국 냉난방 공조학회(ASHRAE)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료의 교환, 회의 참석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공기



▲ 1992년 11월 한국의 이춘식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일본의 Yoshizawa회장의 한·일 공조학회 협약체결 모습

조화위생공학회(SHASE)와는 1992년에 자료의 교환 및 사용 등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1996년에는 스칸디나비아 공조학회연맹(SCANVAC)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 및 학술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1996년 7월에는 본 학회 창립25주년을 기념하여 온돌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난방방식인 온돌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외국 관련 학회와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계획〉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는 2001년에는 국제학술회의의 국내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30주년기념 학술발표회를 계획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공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기에 있어 동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기술의 발전이 진작되려면 무엇보다도 전문인력 확충과 전문기술인 상호간의 학술활동교류 촉진 등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노력이 필요한 관점에서 앞으로 학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전문기술인간의 협력 및 해외 관계기관과의 기술정보 교환 등을 활발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㉞